

‘내우외환’ 아베 정권

신사 참배로 국제사회 반발...비위 의혹 女장관 동반 사퇴로 ‘정권 위기’

일본 아베 각료 3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사에 공물 봉납을 해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가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 내세운 여성 각료들이 정치자금 부정사용 등 각종 의혹으로 연달아 낙마하면서 정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총리의 각료 임명 책임을 국회에서 철저히 추궁하는 한편 예토 방위성에 대해서도 공세의 날을 세울 계획을 보였다.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 야스쿠니 참배 및 봉납=아베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가를 제사(17~20일) 시작일인 지난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또한,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10여 명도 이날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했다.

이날 18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무상, 야타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남치문제 담당장(남치상),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여성생활담당장 등 3 명이 신사를 각각 참배했다.

지난달 3일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일본 현직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배한 각료 3명은 개각때 내각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모두 여성이다.

◇韓·中 강력 반발=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여성 각료 3명의 신사 참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동향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와의 경계를 철저히 분명하게 그을 때만이 비로소 중일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도 19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료 3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둔 경고와 우려에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이어 아베 내각의 일부 각료들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 각료 잇따라 낙마=야당 공세 예고=아베 일본 총리가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 만들기’의 기치 아래 지난달 발탁한 여성 각료 2명이 비위 의혹으로 20 일 낙마했다.

오부치 유코(40·小淵優子) 경제산업상(경산상)과 마쓰시마 미도리(58·松島みどり) 법무상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잇달아 아베 총리를 만나 사표를 제출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각료가 비위 의혹으로 중도 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동반 사임한 두 각료는 모두 공직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구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의혹이 문제시됐다. 오부치 경산상은 ‘오부치 후원회’ 등 복수의 정치단체가 선거구인 군마(群馬)현 지지자들을 위해 2010년 등에 개최한 ‘공민권력회’ 회계보고서에서 참가자들이 낸 회비 수입과 이들 정치단체의 지출액 사이에 수천만 엔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관련 기재가 아예 누락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공연 관람행사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치단체가 대신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쓰시마 법무상은 지난여름 자신의 선거구인 도쿄도에서 열린 총선 때 본인 의정활동 내역과 캐리커처가 새겨진 ‘부채’를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두 각료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정권 운영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인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태국 푸켓에서 19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관광 쾌속정과 대형어선의 충돌로 다친 관광객을 들것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푸켓 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27명이 실종되고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0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중 공산당 제18기 ‘4차 전체회의’ 개막 법치·개혁...시진핑 집권 1기 정책 방향 가늠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0일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린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집권 1기의 앞으로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은 이번 회의 기간에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을 논의한 뒤 정책 결정을 위한 표결권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国·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결정돼 법치 확립 문제와 반(反)부패 개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 말 이후 ‘의법치국’이란 주제가 역대 4중전회의의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의제로 ‘사법체제 개혁’과 ‘당내의 기율검사시스템 개혁’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방정부의 반부패 기

관인 검찰국·반(反)탐국을 행정부에서 독립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게 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강(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소 단계에 들어간 저우융강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당 정치국 차원에서 결정된 처분 방향을 의결할 전망이다.

인민일보는 이번 4중전회에 비리로 인해 당적이 박탈됐거나 공식 조사를 받는

18기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7명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처리방향과 함께 이로 말미암은 부분적인 인사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또 중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대외외교’(大國外交)를 추동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속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와 국면에 들어선 홍콩의 반중(反中)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홍콩 시위, 대화 합의 속 경찰 충돌 지속...오늘 대화

도심 점거 시위를 벌이는 홍콩 시민과 정부가 21일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이 지속하고 있다. 경찰 수백명은 19일(현지시간) 새벽 까우룽(九龍)반도 몽콕에서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 철거에 나섰다 시위대와 충돌해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다쳤다고 홍콩 빈과일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흥기를 소지한 남성을 포함해 폭력에 가담한 4명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온라인에서 불법시위 참여를 촉구한 혐의로 23세 남성도 체포했다.

시위대는 경찰이 경찰봉과 후추스프레이를 사용해 비무장 상태의 시위 참가자를 폭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금속 장애물을 이용해 경찰을 공격했기 때문에 경찰봉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경찰관 5명도 부상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조코위 인니 대통령 취임

직선제로 첫 정권교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일 민주주의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취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당에서 수석로 발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 등 국내 정치 지도자들과 토니 에벳 호주 총리,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특사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등 세계 지도자들과 축하 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했다.

치안 당국은 안전을 위해 경찰, 대테러 요원 등 2만 4000여명을 배치했다.

7대 대통령인 조코위는 직선제로 선출된 2번째 대통령으로, 첫 직선제 정권교체를 기록하게 됐다. /연합뉴스

‘에블라 완치’ 英 간호사, 다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 도중 에블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완치된 영국인 남자 간호사 윌리엄 폴리(29)가 다시 시에라리온 봉사현장으로 돌아갔다고 영국 BBC 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는 20일부터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KCL)과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위탁사업체 세 곳이 연합한 ‘킹스헬스파트너스’ 팀과 함께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의 코트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할 예정이다.

그는 “진짜 긴급한 상황이 서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현장으로 돌아가 무고한 죽음을 최대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 영국인 에블라 감염 환자인 폴리

는 지난 8월 런던 로열프리병원으로 옮겨져 실험단계 에블라 치료제인 ‘지맬’을 투여받고 회복했다.

지난 3일 퇴원한 폴리는 줄곧 의료 봉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왔으며 새 여권을 발급받는 대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여권은 에블라 치료를 위해 시에라리온을 빠져나오면서 소각처리됐다.

폴리는 “부모님이 걱정하시기는 하지만 의료봉사야말로 내가 해야 하는 일임을 아시기 때문에 지지해주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에블라에서 완치돼 면역력을 갖게 됐다며 “지난번에 봉사를 떠날 때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꿈과 낭만이 있는 예술의 고장 **보배섬 진도**

진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향우님들을 모시고 고향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재목진도군향우회 한마음 대축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소중한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하는 재목진도군향우회 한마음대축제

초·대·합·니·다

제1부행사 : 개회식 및 식전행사
제2부행사 : 여흥 및 화합, 식사 및 나눔시간

◆ 일시 : 2014년 11월 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목포 유달경기장

◆ 주최 : AA 재목진도군향우회 ◆ 주관 : AA 재목진도군향우회 한마음대축제추진위원회